

'24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6	6.20	회의실	12/12	4	1	17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김동진·김안나·김준하·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장은백·정인영·정희(12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0	1	0	1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신세계 확장 사업 본격화(6.26), 복합쇼핑몰 교통수단 놓고 고심(6.26), 국립 인공지능 영재고 사업 제동 걸리나(6.25), 공항 통합 이전해야 인구 유입(6.24) 등 방송 조치	'24.6.
"	광주FC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람	<뉴스투데이> 인터뷰 ON-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7.1) <뉴스데스크> 스완지 시티 이적 확정 광주fc 엄지성 환송회(7.7) 등 방송 조치	"
"	AI 정책 등 AI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을 두길 바람	<뉴스데스크> 개인에 맞춰 교통신호 적용(7.3),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광주에(6.27), <뉴스투데이> 인공지능 시각으로 진화(6.26), <시사특 라이브>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6.26) 등 방송 조치	"
"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 5.18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30년 맞은 5.18기념재단(6.28), 광주시, '5·18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해야'(6.26), 5·18조사위 최종보고서 대통령·국회 보고(6.24), <뉴스투데이> 짧지만 강력했던 삶.. '윤상원길'로 남다(6.29) 등 방송 조치	"
"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섬 의료 공백, 봉사로 메운다(7.1) 등 방송 조치	"
"	산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쌀·전기 동시 수확 영광에 발전단지 조성(7.1) 해남군, 기회발전특구 양날개 장착..과제는?(6.28)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일반적인 질문에 그쳐 아쉬움.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포함	보도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권고 조치(7.1)	"

"	<시사용광로>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되는 토론 바람	보도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권고 조치(7.1)	"
"	<시사용광로> 스튜디오 배경 무거워 분위기 답답, 경직됨	보도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권고 조치(7.1)	"
"	<시사용광로> 유튜브 광고 시간 길어서 방송 시작 시각 표시 필요	광고 콘텐츠 삭제 편집 조치(7.8)	"
교양	유익한 여행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제공해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전남 관광지 순환 '남도한바퀴' 여름 코스 운행(7.1), <시사특라이브> 남도여행 가볼 만한 곳 보성(6.28), 신안(6.21) 등 방송 조치	"
기타(시청자 불만)	라디오 <시사특 라이브> 광주MBC 자체 편성에 따라 MBC <뉴스하이킥>을 지역에서 청취할 수 없어 불만	편성 정책 안내 고지 조치(6.7)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	----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	----------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보도 바람	지역 현안에 광주지역 어느 방송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에 임하고 있음	○		
"	광주FC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같은 소식을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음	○		
"	시 정책 등 시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을 두길 바람	광주시와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소개하고 신기술을 적극 알려 나가겠음	○		
"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 5.18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송 해주길 바람	활동은 종료됐지만 앞으로도 지속해 5.18 진상규명 관련 보도를 이어 나가겠음	○		
"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람	사회적 소수와 약자들을 위한 지향점을 갖고 보도에 임하겠음	○		
"	산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 바람	신재생에너지 진흥과 탈탄소 정책이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음	○		
"	<시사용광로> 일반적인 질문에 그쳐 아쉬움. 해당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필요함	회의와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시사용광로>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되는 토론 바람	모든 현안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바람직한 의제가 형성되도록 주제와 패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		
"	<시사용광로> 스튜디오 배경 무거워 분위기 답답, 경직됨	향후 개편 때 새로운 배경과 분위기를 선보이도록 고민하겠음	○		
"	유튜브 광고 시간 길어서 방송 시작 시각 표시 필요	광고 콘텐츠 잘라내고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함. 이전 콘텐츠들도 광고 제거하고 볼 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있도록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임			
교양	유익한 여행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제공해주길 바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기타(시청자 불만)	라디오 <시사톡 라이브> 광주MBC 자체 편성에 따라 MBC <뉴스하이킥>을 지역에서 청취할 수 없어 불만	편성 정책을 안내하고 향후 개편 시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6월)

일시	2024. 6. 20. 목. 오후 5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김동진, 김안나, 김준하, 박양우, 박종수, 유한별, 이경주, 이숙희, 장은백, 정인영, 정희(12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위촉장 수여
-강필오, 김동진, 김안나, 김준하, 박양우, 박종수, 유한별, 이경주, 이숙희, 장은백, 정인영, 정희 위원 순으로 위촉장을 수여함
-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김안나 위원이 박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숙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호선함
- 박양우 위원장 : -방송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위원장을 맡아 부담스럽기도 하다. 시청자위원회 역할 자체가 시청자의 관점에서 편성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제시도 하고 비평도 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정책적인 제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다. 우리 위원회가 그런 소임을 다하면 광주 MBC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편성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주기를 바란다. 위원님들 협조 해주시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숙희 부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맡게 되어 얼떨떨하실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립니다.
- 박양우 위원장 : -그럼 새로운 시청자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다. 사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다.
- 김낙곤 사장 : -만나면 좋은 친구 광주MBC가 창사 60년이 됐다. 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적 기구다. 핵심은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점이다. 시청자위원회는 주인을 대표해 각계에서 모인 것이다. 위원님들 모시고 시청자의 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직을 맡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박양우 위원장 : -콘텐츠본부와 보도본부 순으로 주요 보고사항을 듣겠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테마기행 길> 구레 편을 제작해 지역 MBC 계열사에서 방송했다. <남도탐구생활>이 개편 후 시작돼 매주 화~목요일 방송하고 있으며,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작인 지역 MBC 6개 사 공동제작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가락 우리 문화>, <풍류달빛공연> 서울 및 광주 방송, <김영록의 DJ 이야기 대담> 등을 방송했다. 라디오 정규 제작 프로그램을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3시>, <시사톡 라이브>가 있으며, 라디오 상반기 개편이 6월 3일 시행됐는데,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를 신설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제작지원작인 <전설의 타이거즈> 제작을 준비하고, 디지털 채널 정규 제작 및 업로드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가 함께 공동 제작하는 <아시안 탐밴드 2>를 준비 중이며, 11월 22일 열릴 제2회 대한민국 김치대전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5.18 44주년 연속 기획보도 '다시, 체로키 파일을 열다'를 여덟 차례 방송했다. 5.18

체로키 파일을 작성한 당사자를 직접 찾아냈다는 게 성과라 할 수 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미흡한 활동 결과를 비판하면서, 발포명령자 규명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했다. 채무자 집을 잘못 알고 들어간 광주지법 집행관실 논란 보도는 세 차례 했으며, 전국 방송도 한 차례 있었다. 광주지법 압류 담당 집행관들이 일반 시민 집으로 잘못 알고 진입한 것인데, 채무자 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문손잡이를 수리하고 몰래 나온 것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들어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었다. 법원행정처에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광주군공항, 민간 공항의 무안으로 통합 이전 기획보도에서는 광주시의 무안군 홍보활동을 동행 취재했다. 군공항 소음 문제 팩트와 지역소멸 팩트 체크 등 보도를 계속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왜곡 부실 논란 5.18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최종 내용은?, 개원부터 여야 격돌 22대 국회 전망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 기획보도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와 토론회를 통해 의제 화할 계획이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자 배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23년 10월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돌파 이후 정제기다. 12만 2,500명 정도인데 올해 연말까지 15만 명 돌파를 목표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료실에 있는 옛날 취재 테이프와 새로운 인터뷰물 코너 개발을 통해 뉴스 유튜브 자체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제일 아쉬운 게 아시아에 있는 예술인들이 전시 공연하고 거기 학생들이 광주에 와서 유학 하는 게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데. 광주MBC에서 아시아 관련 콘텐츠 기획하고 있어 좋아. 보도본부도 5.18 관련 기획보도 굉장히 의미 있다. 목포MBC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언론의 중요한 기능
- 강필오 위원 : -<테마기행 길> 초록을 걷는 시간, 구례 편에서는 지리산을 품은 자연에 온 듯한 민간 정원 반야원, 건강 가득 한 상 산나물 맛집, 전통 부채 제작소, 꽃보다 화려한 야경을 지닌 수달 생태 공원, 지리산 공원 지초봉의 아름다운 풍경, 산수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산동 두부 맛집, 섬진강 자전거길을 소개했다. 유익한 여행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계속 제공해주길 바란다.
-<남도탐구생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신중년 정책' 편도 시청했다. 전국에서 노령인구 증가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남,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인구 정책인 '신중년 정책'이 부족하다는 전남도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신중년'이란 50세~65세를 얘기한다. 노인인구의 50% 정도를 신중년이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자 비중이 높고 미취업자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노후 준비가 되지 못해 노인 빈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신중년 지원센터의 한계를 살펴보고 전남 부서 신설로 체계적 관리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교육 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 전라남도 최선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끼인 세대인 '신중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했다. ACC 초록초록 산책 프로그램도 소개해줬다. 도심 속 초록초록한 산책과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ACC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나눠 주셔서 유익하고 보는 즐거움까지 챙겨줬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에 의해 밀리 환초(남태평양 마셜제도에 있는 섬)로 강제동원된 약 800명 중 고래고기라고 속여 인육을 먹인 일로 인해 탈출을 감행하던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의 피해자 55명이 모두 전남 출신인 사실이 일본의 다케우치 야스토(일제 강제노역 연구자) 씨에 의해 밝혀졌다고 한다. 우선, 외롭고 어려운 자료를 찾아주신 다케우치 야스토 씨께 감사드리고 싶다.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며, 반드시 진상 규명되기를 바라며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회복을 위해 모두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 김동진 위원 : -저는 광주에 돌아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야 지역이 돌아가는지 알겠다. 대학 고등교육의 장으로서 광주MBC에 쓰임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 김안나 위원 : -5월 14일 <뉴스데스크>에서는 5월 18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 장애인들의 이용이 제외된 점을 취재해줬다.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보도였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도를 계속해주길 바란다. 5월 30일 방송된 5.18 44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미흡한 활동 결과를 비판했다. 왜곡된 5.18을 바로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 5.18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주길 바란다.

- 김준하 위원 : -지스트 교수가 된 지 20년이 됐다. 올해 2월부터 AI 정책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9월부터 AI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도 한다. 시청자위원 활동하면서 광주MBC가 AI가 필요한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AI 정책 등 AI 첨단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박종수 위원 : -나주시 세지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주 품목은 고구마이고 쌀농사도 조금하고 있다. 제가 가진 역량은 많지 않겠지만 최대한 발휘해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6월 18일 <남도탐구생활>에서는 오늘 주요 뉴스를 골라주는 지역 밀착 심층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재난 상황 시 긴급 재난안전 문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지역의 맨발 길 조성에 관하여 조성후 관리의 문제점과 건강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행처럼 늘어난 맨발 길을 만들 때 관리적 문제나 미흡한 부분의 해결책이 나온 후에 심도 있게 논의 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시민구단인 광주FC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감독은 선수를 추가 영입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의 발전과 성장에 더욱더 정진하겠다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광주FC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

-진짜 지역의 뉴스를 전하는 탐구생활군에서 담양뉴스의 박지연 기자는 담양에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보도하였는데 담양 지역에 가볼 만한 곳, 좋은 점, 민원이 발생했던 뉴스 및 지역 안내 사항을 소개하며 여러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은 지역에 대한 공감을 높일 수 있었다. 남도 지역 가볼 만한 곳으로 고흥을 소개했다. 고흥 도양읍 신흥마을에 있는 바다와 꽃밭이 어우러진 라벤더 꽃밭을 일구고 있는 남해안 향기 열대 식물 연구소의 이상명 대표는 라벤더 축제와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과 연인이 함께 방문하여 여행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소개하였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마성의 음식 라면 코너에서는 제주도의 이색 라면 3가지를 소개하면서 저녁 시간 보는 이로 하여금 군침이 돌게 할 정도로 소개하였으며 라면의 끓이고 만들어지는 비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유한별 위원 : -시청자와 광주MBC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아시안 탐 밴드>가 몹시 기대된다. 5.18 보도도 계속하고 계셔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사 용광로> 왜곡 부실 논란 5.18 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최종 내용은? 편을 시청했다. 진상규명조사위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제시를 하여 반영될 기회 및 기간을 주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심의과정뿐 아니라 의결까지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5.18이 광주 지역의 일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후세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5.18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와 협업하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시안 탐 밴드>를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하는 음악과 협업했을 텐데 아쉽다.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나 광주MBC와 협업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다. 보도나 프로그램에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심을 두길 바란다.

-<뉴스데스크> “산적한 지역 현안..‘이제 국회의 시간’”을 관심 있게 시청했다.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 법안으로 ‘인공지능기본법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5·18 정신 헌법 개헌’ 논의 등 광주광역시의 산업 발전과 주요 정책의 실현을 위한 현안들을 재조명시켜줄 수 있는 보도였다. 광주광역시의 대표 사업인 인공지능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 지역 뉴스에서도 언론의 자유성과 지역 동반 성장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주변의 관심을 상기시키고, 사회적 논의 과정이 되도록 움직이게 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 보도를 바란다.

- 이숙희 위원 : -기획보도 '제로키 파일을 열다'를 보면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역시 광주문화방송이었다. 시청자위원이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알고 취재진을 미국으로 보냈을까 궁금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연속 기획보도 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잘했고 고생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없어도 너무 없다… 아마존 8조 투자 흔들” 제하의 단독 보도를 6월 11일에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세상이 호모사피엔스 세상이었다면 지금의 세상은 메타 버스 사피엔스 세상이고 신재생 전력 천하지 대본 세상이다. 이를테면 반도체, 자동차, 데이터센터, 모든 기업과 가정 안에 쓰고 있는 우리는 전기와 통신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바람과 태양은 누구의 것일까? 전 지구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RE100이다. RE100은 신재생에너지에서만 나오는 일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특별한 음식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이 음식을 먹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늦었다. 절박한 시점이다. 전기농사 규제 철폐 바람농사 특별법 즉시 시행, 부디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탄소는 빨리 이별할수록 좋다. 언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사명감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거 같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다. 광주MBC에서는 산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도를 바란다.

- 장은백 위원 : -<시사용광로> '개원부터 여야 격돌 22대 국회 전망은' 편에서는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당 의원, 교수로 이뤄졌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의미가 있었다. 질문 선정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두루 균형 있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 질문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매번 바쁘게 주제가 바뀌는 시사 프로그램에 깊이를 담기가 쉽지는 않지만, 해당 쟁점에 대해 고민해야 구체적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긴장감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의정 갈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 다수 야당의 소리는 기존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므로 다수 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민주당 외 패널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예리한 질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시청자의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된 방송분을 보기까지 공익광고 등으로 10분간 기다려야 한다. 광고를 삭제할 수 없다면, 중간에 본 방송 시작 시각을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스튜디오 배경은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시사 프로그램의 매력은 자유로움과 생동감인데, 방송 스튜디오 배경이 너무 무거워서 방송 초반 분위기가 답답하고, 경직되어 보인다.

- 정인영 위원 : -시청자위원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미숙함이 있지만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립니다.

- 정희 위원 : -<테마기행 길> 구례 편에서는 자연경관, 구례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다. 음식, 축제 소개도 있었다. 여행할 때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익한 지역 관광 정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해주길 바란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광역시 관련 의견이다. 광주광역시에 Data Center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이 AI 등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광주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광주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이에 대해 시리즈 보도를 이어간다면, 각계각층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Data Center 역할을 취재나 상공회의소나 경총에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국회, 시의원들의 방문을 통해 향후 지원 필요 사항 논의 등도 다뤄보면 좋겠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기보다는 미래도시 광주와 관련이 있을 듯하여 말씀드린다.

- 박양우 위원장 : -민선 8기 2년, 광주-전남 현안 사업 엿박자를 주제로 한 <시사용광로> 의견이다. 광주-전

남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4인의 토론자를 구성하고 4인의 의견을 돌아가며 듣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안 사업에 대한 4인의 전반적인 총평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11개의 사업들을 두루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 현시점에서 광주-전남 주민들이 큰 관심이 있는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 또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각 토론자의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토론자에게 넘기는 깔끔한 진행을 보여주었지만, 의도적으로 토론자의 의견과 다음 주제를 연결하려는 것은 특정 의견으로 시청자를 이끌거나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으로 보였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4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좋지만,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일부로서 지역 정책이 중앙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 과정을 중앙 정부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론자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법률 자료 제공은 토론자의 의견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20초 정도의 반복적 노출은 시청자가 해당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라색 배경의 흰색 글씨와 연두색을 강조하는 구성은 시각적 측면에서 그리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광주-전남과의 상생을 위한 11개의 현안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토론자들의 주관적인 의견 개진에 그친 한계가 보였다. 약 5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방송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 생각되지만, 광주-전남지역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지역방송인만큼 현안 사업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몇 개의 실효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시청자위원회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시청자의 관점에서 방송의 사회적 책임, 그걸 시청자위원회에서 잘 감당해주시면 광주MBC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관심을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다.

- 김주호 경영본부장 : -시청자위원회는 매일 정례 회의를 하고 있다. 세 번째 수요일로 날짜를 정하고자 한다. 다음 달 회의는 7월 17일이다.

끝.